



준비와 목탁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희망’ 보여준 2008 불교문화엑스포

2008년 12월 불심 수도 부산에서 처음으로 불교문화엑스포가 탄생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여) 주최로 열린 '2008 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가 12월 4~7일 해운대 벅스코 특별전시장에서 성료됐다. 기존의 팔관회와 산업박람회를 결합해 불교산업 관련 180여 업체의 관람부스를 설치해 대규모 불교문화엑스포로 재구성했다. 사찰 성장모델 구축을 위한 정보교류의 장 마련을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하루 평균 6000여 명, 총 3만 여명이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행사가 열리기 전 관람객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첫날 오전 10시 개막과 함께 모든 관심경이 불식됐다. 첫날에만 8000여 명이 다녀갔고, 대규모 기도법회와 평소 만나기 힘들었던 다양한 불교관련 업체들의 홍보 부스로 어엿한 불교문화축제로 승화됐다. 게다가 불교에 문화라는 키워드를 조합해 '고리타분한 불교'라는 선입견을 깨뜨리고 불교의 문턱을 낮추는 포교 효과도 거뒀다.

하지만 전시에 참여한 관련업체의 상당수가 차, 사찰음식, 법복, 다기 등을 판매하는 부스들로 그 성격이 다소 일회적이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 판매 위주여서 아쉬웠다. 대신 스

님과 사찰 종무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사찰건축 및 보존, 종무원 전문교육, 영상 제작, 종무원리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개발 등 불교관련 업체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마케팅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명실상부한 박람회 기능일 것이다.

주요 법회 전후에 이어진 연례인 축하공연이 팔관회와 이질감이 든 점도 개선할 점이었다. 이들 무대는 흥겨웠지만 가수스님의 공연, 불무도 시범, 범용법패 시연, 불교식 차례시연 등과 같이 평소 불자들이 만나기 어려웠던 불교문화 공연을 구성했다면 좀더 알찬 축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팔관회는 2009년 세계로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내년부터는 부산시에서 팔관회를 위한 시지원보조금으로 5000만원의 예산이 지급돼, 좀더 넉넉한 재정을 바탕으로 풍성한 축제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이번 축제의 성공요인과 부족한 점들을 되새기고, 여러 유관업체들을 통한 문화적 가치의 재생산에 좀더 귀 기울인다면 양적인 발전과 함께 질적으로도 우수한 불교축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팔관회가 지구촌 불교문화축제의인 세계불교문화엑스포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전진기지가 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불교포탈 부다피아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온라인서점 예시어문

www.buddhanews.com www.buddhapia.com http://ad.buddhapia.com www.yosiamun.com

광고 (02)2004-8213-7 FAX (02)737-0696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템플스테이 세계브랜드 만들기

조계종·관광공사·나경원 의원 등 관련 세미나 공동주최

한국의 대표적인 불교문화체험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를 세계적인 문화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불교계와 정부, 국회가 손을 맞잡았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과 한국관광공사(사장 오지철)는 나경원·전병헌 의원과 공동으로 12월 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템플스테이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조계종 총무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대표 관광 사업으로서의 가능성과 개선점', '지역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템플스테이 발전방향, '템플스테이 해외 마케팅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템플스테이의 발전방향이 집중 모색된다.

발제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심원섭 박사, 전남발전연구원 김준 박사, 테라사키 요시유키(前 Travel

Journal 지국장) 등 3명이며 토론자는 미항사 주지 금강 스님, 김성운 前 휠라코리아 마케팅 상무, 화엄사 대요스님, 경상북도 관광산업국 서원 사무관, 외교교통부 문화예술사업과 김득환씨, 한나라관광(주) 권혜경 상무 등 6명이다.

불교문화사업단에 따르면, 템플스테이 참가자는 2007년에 비해 동기간(11월 누계) 30%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참가자는 2007년 8만1652명(내국인 6만8119명, 외국인 1만3533명)이며, 2008년 11월 현재 9만8242명(내국인 8만1597명, 외국인 1만6645)으로 집계됐다.

참가자의 증가는 한국 전통문화의 보고인 템플스테이 사찰의 운영자 스님 및 실무자들의 노력과 정신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참가자들의 욕구가 부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국인의 참여비중이 높은 만큼 템플스테이의 관광적 역할 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불안 해소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여가 문화적 기능이 적극 모색돼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불교문화사업단장 종훈 스님은 "향후 템플스테이는 현 사회에서 회미해져 가는 공동체 정서 회복과 자연과 조화되는 삶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현대인들이 정신적 불안을 극복하고, 심신의 건강을 되찾는 최적의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꾸준히 발전해 가고 있는 템플스테이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장기적 발전 전략을 마련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문화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조계종·산림청, 사찰산림 보호 협약체결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실무협약체 구성키로

조계종과 정부가 사찰산림 보호를 위해 함께 팔을 걷어 붙였다.

조계종과 산림청은 사찰산림에 대한 효율적 보호와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12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하영제 산림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지관 스님은 "사찰산림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 드린다"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하영제 산림청장은 "낙산사, 송례문 화재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만큼 조계종과 실무협약체 구성해 사찰림 보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찰산림이 민족의 혼이 담긴 소중한 공익적 가치를 지닌 자산을 인식하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조계종과 산림청은 사찰산림에 대한 문화재 숲 가꾸기,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 산림복원, 숲길정비 등 산림보호와



12월 11일 협약식을 체결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하영제 산림청장. 사진=이나라 기자

관리 등 기본적인 산림사업은 물론 등 적극적인 협력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우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를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사),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영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직지사·김천사암연합 동지맞이 자비나눔 팔죽공양 김천 직지사(주지 성종·사진)와 김천불교사암연합회(회장 장명)는 12월 10일 김천역 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동지맞이 자비나눔 팔죽공양'을 실시했다. 스님 50여 명과 신도 150여 명은 주민 1000여 명에게 따뜻한 팔죽과 함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라는 덕담을 공양했다. 손법선 대구지사장

“상무부대 군중활동 보장하라”

범불교대책위...4일 국방부에 항의 공문

“국군체육부대(이하 상무) 이전시 군중활동 보장하라”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지관)과 종교편향종교사범불교대책위원회(위원장 원학)는 12월 12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군체육부대에 종교편향 우려가 있어 지난 4월 국방부에 항의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문경으로 이전할 예정인 상무이전계획안에 현재 민간인 목사가 운영하는 교회가 건립 예정인 반면, 군중은 인가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지침사항으로 이뤄진 이전에

획 중 종교시설 입지는 교회와 야의 종교시설만 계획돼 기존 교회는 120평 규모로 신축계획이 수립된 상태다. 상무에는 600여 명의 체육장병이 복무하고 있어 종교시설 형평성에 맞춘 종교편향이 심각히 우려된다.

범불교대책위는 “상무부대장병들이 균등한 종교활동 권익을 제공받도록 하겠다. 상무부대 내에는 현재 천주교 및 타종교 시설도 누락돼 있어 향후 천주교와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2008년 교육공로포상 선정

법산 스님, 종정스님 표창패 수상

조계종 승가교육에 헌신해 온 법산 스님(사진) 등이 2008년 교육공로포상을 수상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정화)은 12월 11일 교육원장 집무실에서 2008년 교육공로포상 수여식을 봉행했다. 이날 제1~4기 고시위원장으로 봉직한 법산 스님이 종정스님 표창패를 수상했다. 또 제18~36기 행자교육원 유나 및 운영위원으로 종단도 제양성에 앞장선 지현 스님이 총무원장 표창패를, 교재편찬위원회

법장·용학 스님이 각각 교육원장 표창패를 받았다. 종단 기본교육기관에 장학금 및 교재를 기부한 백천장학재단과 종단본 <금강경> 한문·한글본 편찬본사에 기여한 최형숙씨가 각각 교육원장 감사패를 수상했다. 조동섭 기자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영을 직접 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인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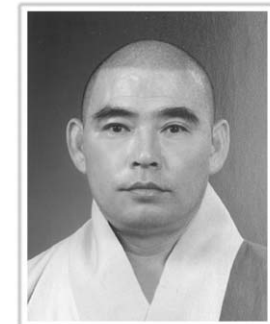
전생체험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빙의, 퇴마, 최면을 배우실분
●자기최면, 타인최면을 배우실분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종교불문)

-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최면, 빙의,퇴마 등을 한국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최단기간 실전교육
●최면시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몽땅 상담하세요.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빙의(귀신병) 퇴마,최면? 100% 전수 - 치유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비염, 발기부전 특효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장사 현오 합장 HTTP://WWW.JIJANGSA24.ORG

서울지사 :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251번지 연세빌딩 후문앞 지장사
☎ 02)796-7579 / H·P 010-3056-3315
●서울교육 : 목, 금, 토, 일 (숙식가능)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북구 회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회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 051)364-5586 / H·P 010-3056-3315
●부산교육 : 연중무휴